

온 나라에 선군문화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령도

박 사 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참다운 선군문화가 활짝 꽃피어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선군문화의 확립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에서 창조한 군인문화에는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량만과 풍부한 정서가 넘쳐나고있으며 그것은 새시대 사회주의생활문화의 전형으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모범,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424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있던 1990년대 중엽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교수하고 빛내이시는 한편 온 나라에 선군문화가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문화생활의 거점인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반적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을 비롯하여 고등교육부문의 수많은 대학들과 김기송회령제1중학교와 영웅문천중학교를 비롯한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교육수준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민족간부양성과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한해만도 3차례나 대학을 찾으시여 교육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와 교육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대학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과 수영관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주체99(2010)년 4월 또다시 대학을 찾으시여서는 세계일류급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갈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이처럼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모든 교육기관들이 문화교양의 거점답게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으며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인민군대에서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창조하도록 하시여 온 나라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을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혁명군가로 받들어나가

는 최고사령관의 나팔수로 키워주시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전문예술단체들의 예술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온 나라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때에 신심과 락관을 주는 혁명적인 노래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을 불러일으키실 숭고한 뜻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남성합창단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예술단체로 꾸리고 전문적으로 합창만을 형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합창단의 명칭을 공훈국가합창단으로 명명하여주시고 국가적인 합창단으로서 군사물주제의 노래뿐아니라 《동지애의 노래》, 《전사의 념원》,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비롯하여 명곡들도 다 형상하도록 합창곡목도 선정하여주시였고 세계적인 명가수, 관록있는 창작가들로 합창단의 령량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나라 예술단체들의 본보기로 되게 되였으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으로 원썬들을 짓뭇개버리는 멸적의 총폭탄합성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조선인민군협주단도 혁명무력의 전투적 예술부대, 사상전선의 전위대로서의 고귀한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화술작품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혁명적군인정신과 전투적인 창작기풍을 발휘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어머니의 행복》, 《철령의 대대장》, 《녀병사의 수기》, 《우리 정치지도원》 등의 예술영화들과 《동지》, 《철령》, 《편지》, 《약속》과 같은 혁명적인 경희극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하심으로써 선군시대 영화예술의 본보기집단으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전문예술단체들의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창조기풍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명작풍작을 안아왔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도 창조하도록 하시여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기풍, 투쟁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중대의 예술소조활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83(1994)년 12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에서는 예술소조활동도 중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중대예술소조활동을 중시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중대예술소조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계속 살려나가면서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사랑의 악기들도 보내주시여 군인들의 예술소조활동에 리용하도록 하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전선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도 빠짐없

이 보아주시면서 그들이 혁명적인 군중문화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도록 고무해주시었으며 인민군대에서 국가적인 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전군이 참가하는 군무자에 술축전을 조직하도록 하시어 예술소조공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속에 군인들이 생활하는 산중초소와 외진 섬초소를 비롯한 그 어디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와 랑만이 차넘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가 창조되게 되었다.

전군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87(1998)년 4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성이 높고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전통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첫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 진행된 때로부터 해마다 공연을 빠짐없이 보아주시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군중문화예술활동의 본보기로 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으며 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거듭되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군인가족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날을 따라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힘있는 예술소조활동으로서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군중문화예술활동의 본보기가 사회에 끊임없이 흘러들어 온 나라에 군중문화예술의 대화원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정신과 혁명적기백과 랑만이 차넘치는 군무자에술축전에서 당선된 공연들과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대한 관람을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의 창작가들이 인민군대의 창작기풍을 따라배워 선군시대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써내도록 하시었으며 우수한 작품을 써낸 창작가들에게 평가사업도 크게 해주어 그들의 창작적의욕을 높여주도록 하시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군중문화예술소조활동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자강도와 홍남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예술활동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자강도인민들과 함께 고난의 행군길을 걸으시며 그들을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중문화예술소조활동에서도 자강도가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정든 고장인 자강도를 찾고 또 찾으시어 자강도사람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예술활동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에는 홍남의 로동계급이 창조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로동계급속에서 창조되는 예술만이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며 선군시대의 본보기예술이라고 할수 있다고, 홍남의 로동계급속에서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군중예술이야말로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새 문화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예술소조원들을 평양에 올려다가 공연을 하게 하며 TV방송으로도 내보내여 전국이 다 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군중문화예술소조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보람찬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인민군대에서 생활환경을 정신이 번쩍나게 꾸려놓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은 혁명가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이며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인민군대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병실은 물론 문화시설과 후방시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생활문화확립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부대들과 단위들을 내세우시고 그들의 혁명적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전군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7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생활환경을 정신이 번쩍들게 꾸리고 생활하고있는 어느 한 군관학교를 보시고서는 바로 이것이 선군시대 우리 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이 학교를 전군, 전국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병실과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전군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생활문화가 창조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인 생활기풍, 투쟁기풍을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전형, 본보기로 내세우고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6월을 비롯한 여러 교시들에서 인민군대는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모범이라고 하시며 부대들을 알뜰히 꾸리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인민군대의 이 자랑스러운 군풍을 온 사회가 따라배울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여러차례 현지도하시면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자강도 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온 나라가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생활문화확립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으며 새 세기에는 평안북도 박천군을 생활문화확립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거리와 마을, 일터는 날이 갈수록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평양시의 거리와 살림집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 선군시대의 표준살림집으로 일떠서게 되었으며 우리 식의 불장식이 펼쳐져 혁명의 수도 평양은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지방의 도시와 농촌들의 면모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변되었다.

만포시가 국경도시답게 면모를 일신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도시들에 현대적인 거리와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인민을 위한 편의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다.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에서 타오른 사회주의리상촌을 꾸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져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들이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가 체육사업에서도 백두산혁명장군의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도록 이끄시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88(1999)년에 진행된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들과 주체90(2001)년 7월초에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제1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제13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하는 좋은 경기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바쳐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